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현수를 아끼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김현수, 우리에게는 현수, 제게는 여보를 보내드리며 그의 삶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건네지 못한 말들을 여기 모인 이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26년, 그 길을 천천히 더듬어 보겠습니다.

현수는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소 현장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선박 설계와 안전 개선을 자기 일처럼, 아니 자기 사람을 지키듯 대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묵묵히 책임을 다하되, 약한 이를 먼저 돌아보던 사람.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두던 사람.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말수만큼 더 깊은 신뢰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현수는 언제나 “함께 걸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 새벽, 해가 뜨기 전 광안리 바닷가를 나란히 걸으며 종이컵 커피를 나눴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울 땐 제 주머니에 핫팩을 말없이 밀어 넣어 주고, 제 걸음이 느리면 발맞춰 속도를 낮췄습니다. 파도가 금빛으로 번지며 하루가 밝아올 때, 현수는 늘 같은 말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하지만 반듯하게.” 그 한마디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웃기는 재주가 있었지요. 긴장된 분위기에서도 눈가가 살짝 접히는 그 미소 하나면 모두가 숨을 놓았습니다. 회의 자리든, 식탁이든, 그가 던지는 가벼운 농담은 날카롭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가까이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그의 묵직한 포옹에서 안심을 얻고, 무심한 듯 챙겨 주는 배려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안을 환하게 하던 그 미소,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비치고 있습니다.

현수의 삶을 떠올리면, 늘 “함께”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현장은 단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후배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역 공업고에서의 멘토링 봉사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모르는 건 함께 찾아보고, “한 번 더 해 보자”라고 등 두드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가족뿐 아니라 현수에게 배웠던 이들의 마음도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chudosa.com에서 나눈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가정에서는 더없이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노부모님을 공경하고, 두 누이와도 자주 소식을 나누며, 우리 아이들—아들 도윤, 딸 서윤—의 하루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으려 늘 서둘렀고, 아이들의 발표회, 시합, 작은 약속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긴 당부도 아이들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 꿈을 끝까지 응원해달라.” 여보, 그 부탁,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자기 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이 그러했듯 묵묵히 옆에서 등을 받쳐 주겠습니다.

현수는 바깥세상을 사랑했지요. 산길을 오르면 표정이 환해졌고, 바다 앞에서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낚싯대를 잡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필름 카메라로 빛이 무르익는 순간을 오래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미학이야말로 현수의 삶을 닮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때를 믿고 준비하는 자세. 그 품성이 그의 일과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켜 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문득 찾아오던 그 포옹의 온기, 알아서 내어주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거실을 가득 채우던 미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슬픔이 전부는 아닙니다. 현수의 삶은 끝이 아니라 이어짐을 남겼습니다. 안전을 더한 배처럼, 그가 쌓아 올린 원칙과 배려는 우리 일상 깊은 곳에서 계속 항해할 것입니다. 가족을 중심에 두던 그의 질서는, 우리가 서로를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으로 남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던 그의 태도는, 우리 아이들의 어른살이에 단단한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견지한 그 몇 가지의 간명한 문장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 가족이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끝까지 응원한다. 이 네 문장을 우리 집안의 새로운 가훈처럼 붙들고 살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미소를 서로 나누어 지으며, 당신의 유머로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하며, 당신의 성실로 하루를 쌓아 올리겠습니다.

현수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 작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별이 아니라, 서로의 곁을 더 단단히 지키게 하는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수가 평생 해 온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온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배웅합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산은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그 아침길을, 우리 가족이 이어 걷겠습니다. 파도는 다시 돌아오고, 빛은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의 미소처럼.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고마웠습니다, 여보. 그 포옹, 그 배려, 그 미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 준 빛나는 원칙들. 당신은 우리 곁에서 떠났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함께한 시간으로, 그리고 앞으로 지켜 갈 약속들로, 당신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